

청소년 축구 오늘 오전 8시45분 폴란드 넘어 16강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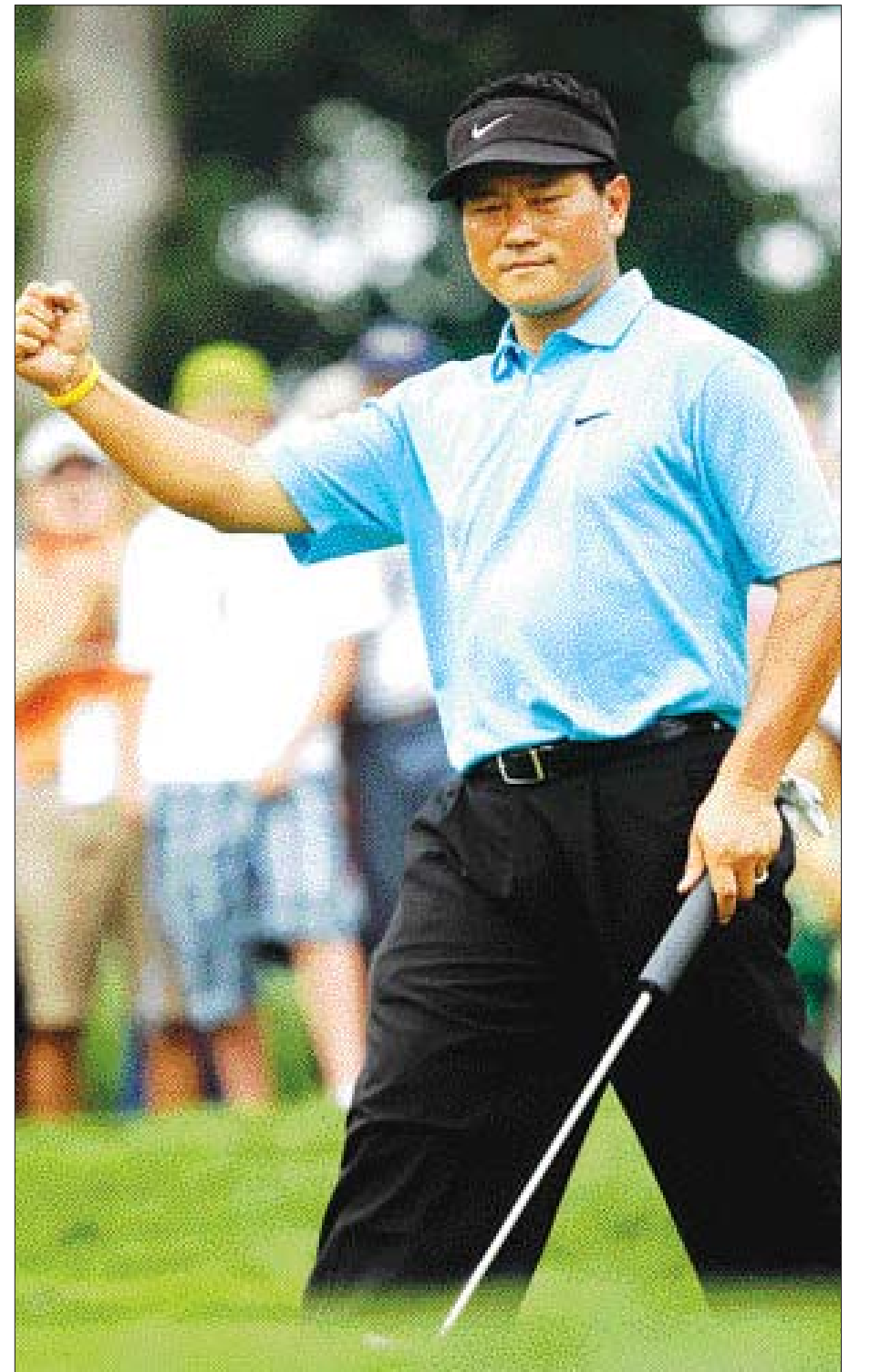


20세 이하(U-20) 청소년축구대표팀 선수들이 6일 오전(한국시간)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가진 팀훈련에서 미니게임을 하며 폴란드전 승리를 위한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4언더파 공동1위

美 PGA AT&T 내셔널 1R

‘완도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주최하는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 첫날 리더 보드 상단에 이름을 올리며 우승에 판박이를 썼다.
최경주는 6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풍그레세넬골프장(파70·7천204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이며 4언더파 66타의 스코어를 적어냈다.
김 퓨릭(미국), 비제이 심(피지), 스투어트 애플비(호주), 조 오갈비(미국)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동 1위에 오른 최경주는 세계정상급 선수 120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다.
대회 주최자인 우즈는 밤새 첫 딸을 돌보느라 잠이 부족했던지 버디는 4개에 그치고 보기 7개를 쏟아내 3오버파 73타, 공동 77위로 밀렸다. 특히 퍼트 수가 34개나 돼 집중력 부족을 드러냈다.
지난 달 초특급 대회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던 최경주는 US오픈에서 컷오프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2개 대회를 거르고 필드로 돌아온 최경주는 드라이브샷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린 적중률 83%에 이르는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그린을 공략하고 그린 적중시 퍼트 수를 1.6개로 줄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다.
10번홀에서 출발한 최경주는 전반에만 보기 없이 3타를 줄였고 1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한 뒤 3번홀과 5번홀(이상 파4)에서 보기를 범해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6번홀(파4)을 버디로 만회한 최경주는 마지막 9번홀(파5)에서 다시 1타를 줄여 공동 선두 자리를 지켰다. 우즈로부터 초청장을 함께 받은 나상욱(23·코브라골프)과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나란히 1오버파 71타를 쳐 공동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가 5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PGA AT&T 내셔널 대회 1라운드 18번홀에서 버디퍼트를 성공시킨 후 주먹을 불끈 쥐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SS 듀오’ 수비 뒷공간을 노려라

신영록·심영성 골사냥 기대

‘멕시코 4강신화 재현’을 다짐한 20세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1차 관문인 16강 외나무 다리에서 동유럽 강호 폴란드를 만났다.
한국은 7일 오전 8시45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폴란드와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조별리그 D조 3차전을 치른다.
2002 한일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승리를 안겨줬던 폴란드를 이제는 U-20 월드컵 16강 진출의 제물로 삼아야 한다.
미국(1-1 무), 브라질(2-3 패)과 앞선 경기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승점 1을 얻는데 그친 한국은 물러설 곳이 없다. 조 3위라도 차지해 16강에 오르려면 폴란드를 반드시 꺾어야 한다. 비겨도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다.
반면 1승1패의 폴란드는 비기기만 해도 조 3위로 16강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 역시 이번 경기에서 패한다면 조 4위로 밀려나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야 할 처지다.
한국으로서는 폴란드전에서 승리하면 같은 시각 오타와에서 키크오프를 치는 미국-브라질전 결과에 따라 조 2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 3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 2위가 되면 E조 1위가 유력한 대회 최대 우승국(5회) 아르헨티나에 맞붙게 돼 조 3위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폴란드전 필승이 전제 조건이다.
폴란드 골문을 열 투톱으로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넣은 세 골을 모두 책임진 ‘SS 듀오’ 신영록(수원)과 심영성(제주)의 선발 출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신영록은 이번 대회 두 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심영성도 브라질전에서 골 맛을 봤다.
다만 신영록은 브라질전에서 코뼈를 다친 게 걸리고, 심영성도 몸살 기운이 있어 걱정스럽다. 대표팀이 자랑할 만한 중원에는 김동석(서울)과 이상호(울산), 이창용(서울)이 배치될 전망이다.
좌·우 미드필더에는 주장 박주호(송실대)와 신광훈(포항)이 출전해 상대의 취약점인 측면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준다면 박주호 대신 정경호(경남)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다.
스리백 라인도 변함없이 최철순(전북)을 중심으로 기성용(서울)과 배성진(요코하마FC)이 좌·우에 배치된다. 골문은 김진현(동국대)이 지킨다.
스피드가 떨어지는 상대 수비의 뒷 공간과 측면을 주 공격 루트로 삼은 한국은 6일 오전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실시한 최종 훈련 중 측면 크로스에 이은 마무리를 가다듬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멕시코 대회 3위...유럽 전통 강호

폴란드는 어떤 팀
20세 이하(U-20) 청소년축구대표팀의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대회 첫 승과 16강 진출 도전 앞에 다시 폴란드가 섰다. 우크라이나와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폴란드는 5년 뒤 A대표팀의 주요 전력으로 활용될 U-20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폴란드는 U-20 월드컵에 24년 만에 다시 출전했다. 1979년 일본 대회에 처음 참가한 뒤 1983년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랐지만 이후 번번이 유럽 예선에서 주저앉았다. 역대 최고 성적은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1983년 멕시코 대회의 3위다. 당시 3~4위전 상대는 승승장구하며 역시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박종환 사단’의 한국이었다.
처녀 출전한 1979년에는 4강에 올랐고, 1981년 호주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대회에도 우여곡절 끝에 출전했다. 지난해 7월 열린 U-19 유럽선수권대회 최종라운드에서 A조 3위로 가까스로 캐나다행 막차를 탔다.
스트라이커 다비드 안치크가 키 플레이어로, 자국 명문 클럽 레기아 바르샤바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과 역대 4차례 맞붙어 2승1무1패로 앞섰다.

“아시안컵 47년 恨을 풀어라”

47년 숙원을 풀어라!
태극전사 23명이 47년간 한국축구를 외면했던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찾아 ‘무관(無冠)의 한(恨)’을 풀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간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아시안컵(7~29일) 본선 조별리그가 펼쳐질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지난달 23일 K-리그와 불협화음 속에 힘겹게 제주도 서귀포 소집훈련을 시작한 축구대표팀은 두 차례 평가전에서 5골(1실점)을 터뜨려 만족스런 성과를 거뒀다.
이라크 평가전에서 ‘새내기’ 염기훈(전북)과 이근호(대구)가 골 맛을 보고 연이어 치른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조재진이 살아나면서 ‘나홀로’ 2골을 뽑아내면서 베어벡호 공격력을 불을 질렀다.
이에 따라 베어벡호는 특출한 스타 플레이어가 없지만

베어벡호 어제 자카르타행 23명 고른 기량·조직력 탁월 11일 사우디와 첫 경기 가 관건

대신 23명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도로 고른 기량을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틀니바퀴’ 조직력을 갖춰 가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아시안컵은 동북·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을 아우르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최고 강자를 가리는 자리로 우승팀에는 AFC를 대표해 대륙간컵대회인 컨페더레이션스컵 출전권이 주어진다.
한국은 1956년 제1회 대회와 1960년 제2회 대회를 석권하면서 아시아축구의 맹주로 떠올랐지만 일본(3회 우

승), 이란(3회 우승), 사우디 아라비아(3회 우승)에 아시아 최고의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베어벡 감독은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감독직까지 거는 배수진을 치고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한국은 11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9시35분 자카르타 겔라라 방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와 조별리그 D조 1차전 경기를 치르고, 15일 오후 9시35분 같은 경기장에서 바레인과의 2차전을 펼친다.
준결승은 25일 베트남에서 열리게 되고 대망의 결승전은 29일 오후 9시35분 자카르타 겔라라 방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예정돼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병현 ‘6전7기’ 4승

샌디에이고전 6%이닝 2실점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눈부신 투구로 ‘6전 7기’ 끝에 시즌 4승에 성공하면서 전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김병현은 6일(이하 한국시간)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고 2실점했다. 김병현은 5월 29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시즌 3승을 올린 뒤 여섯 차례 등판에서 승리 없이 2패만 떠안았다.
김병현은 이날 제구가 전체적으로 안정됐고 직구와 슬라이더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 사사구는 3개 밖에 없었고 삼진은 7개나 속아냈다. 투구 수는 77개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 중 스트라이크는 50개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7일(토)
▲U-20 세계 청소년 월드컵(대한민국-폴란드)(08 : 30·KBC)
▲FIFA U20 월드컵(브라질-미국)(08 : 35·SBS스포츠)
▲메이저리그(LA에인절스-뉴욕Y)(07 : 55·Xports), (시애틀-오르랜드)(10 : 55·Xports)
▲일본 프로야구(주니치-한신)(14 : 50·SBS스포츠), (야쿠르트-요미우리)(15 : 00·MBC ESPN)
▲프로야구(한화-LG)(16 : 40·KBSN Sports) <삼성-두산>(18 : 30·MBC ESPN)
8일(일)
▲PGA투어 AT&T 내셔널 3R(04 : 00·SBS스포츠)
▲U-20 세계 청소년 월드컵(스페인-요르단)(06 : 10·KBC)